



# numbers

vol. 235

## 한국 교인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개인 문제 상담, '우리교회 목사님께 받고 싶다' 67%!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2대 총선 유권자 인구 구성 변화
- ② 한국과 일본 고령자 연금 비교
- ③ 미국 세대별 성소수자 인식

2024. 4. 9.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개인 문제 상담, ‘우리교회 목사님께 받고 싶다’ 67%!

많은 목회자, 사역자, 교계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한다. 보통 기업의 경우 위기에 처하면 고객의 니즈 파악을 중심으로 위기 전략을 수립한다. 교회의 상황을 기업과 견주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교회도 교인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와 함께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설교, 교육, 심방, 목양 등 목회의 각 분야에서 교인이 느끼는 욕구를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목할 결과로는 교인 10명 중 7명은 신앙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경험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78%). 또한 개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교인 중 67%가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기를 원했는데 상담받은 자의 대다수가 ‘문제 해결에 도움 되거나 위로를 받았다’고 만족함을 나타냈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개신교인의 목회적 욕구에 대한 조사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교회 출석자)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방법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9월 21일 ~ 10월 5일 (15일간)
조사 주체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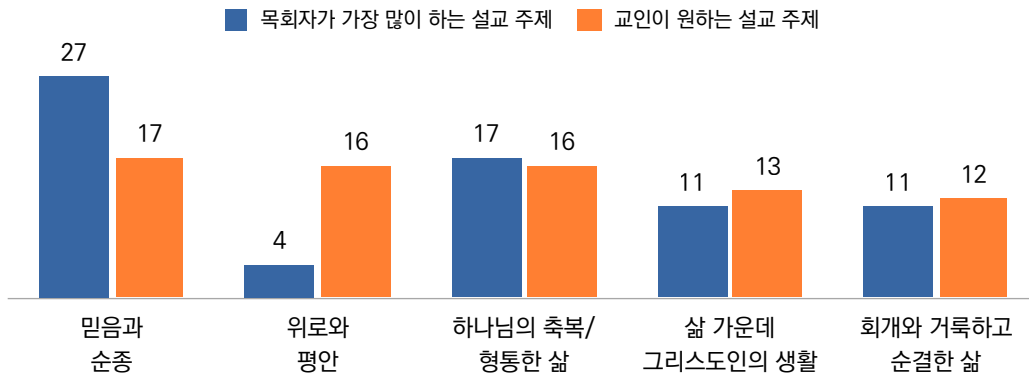
# 01

## [설교에 대한 욕구]

# 원하지만 자주 못 듣는 설교 주제, '위로와 평안'!

- 출석교회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와 교인들이 실제 원하는 설교 주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물어 본 결과, '믿음과 순종'이란 주제의 경우 목회자가 설교하는 빈도가 교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많았다. 반면 '위로와 평안' 주제는 교인이 원하는 것보다 목회자의 설교 주제 빈도가 낮았다. 즉, 교인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 자주 못 듣는 설교 주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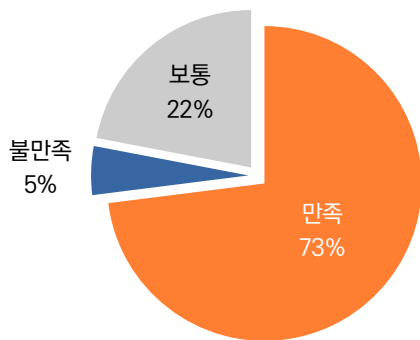
[그림]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vs 교인이 원하는 설교 주제 (교회 출석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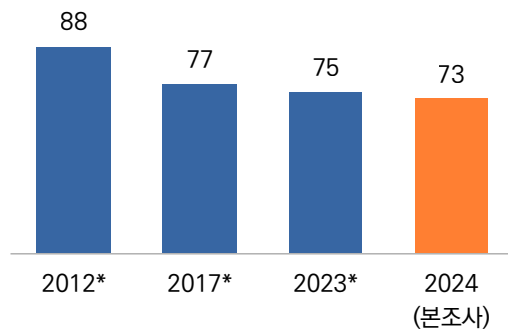
## 교인 10명 중 7명 이상, 출석교회 설교에 만족!

- 출석교회 목회자에 대한 설교 만족도를 묻은 결과, 교회 출석자 4명 중 3명 가까이인 73%가 '만족'이라 응답했고, '보통' 22%, '불만족' 5%로 나타났다.
-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한목협)'의 출석교회 담임목사 설교 만족도를 살펴보면 '설교 잘 함' 기준의 동의율은 과거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출석교회 설교 만족도\*\* (교회 출석자)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 설교 만족도 추이\* (교회 출석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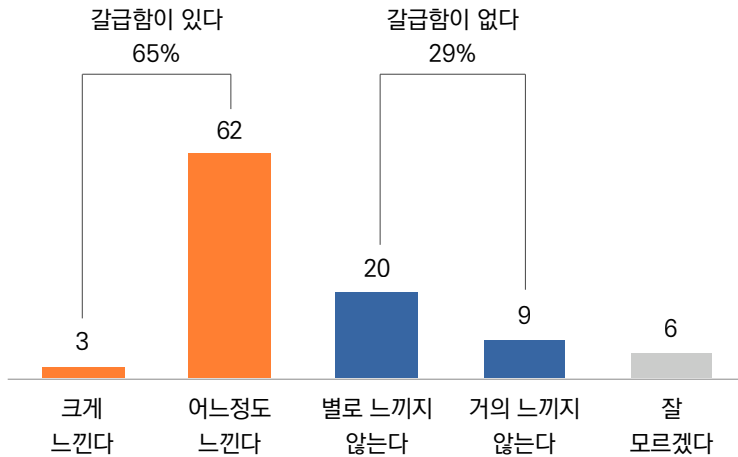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12, 2017, 2023 보고서 참조. '우리교회 목사님은 설교 잘 한다'에 대한 동의율 기준  
 \*\*5점 척도

# 02

## [신앙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 교회 출석자, '영적 갈급함 느낀다' 65%!

- 작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교회 출석자들을 대상으로 영적 갈급함을 조사한 결과, '갈급함이 있다' 65%, '갈급함이 없다' 29%로 교회 출석자 3명 중 2명 정도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이후 한국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영적 갈급함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영적 갈급함 여부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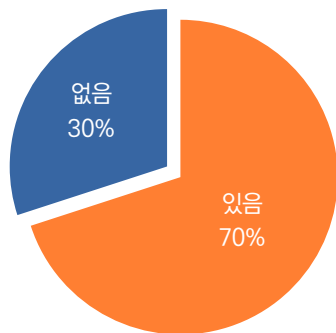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1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 교인 10명 중 7명, 신앙 교육·훈련 받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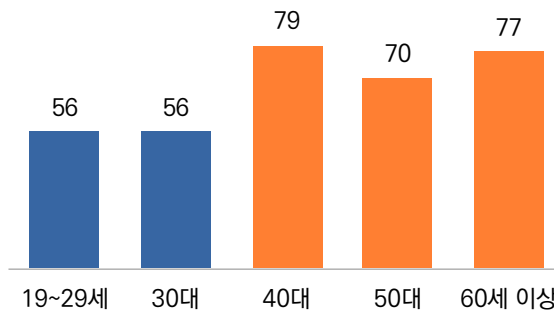
- 이렇듯 영적 갈급함 속에서 교인들은 평소 성경 교육 및 신앙 훈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할까? 교회 출석자의 70%가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7명은 평소 신앙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신앙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신앙 교육·훈련 욕구\* (교회 출석자)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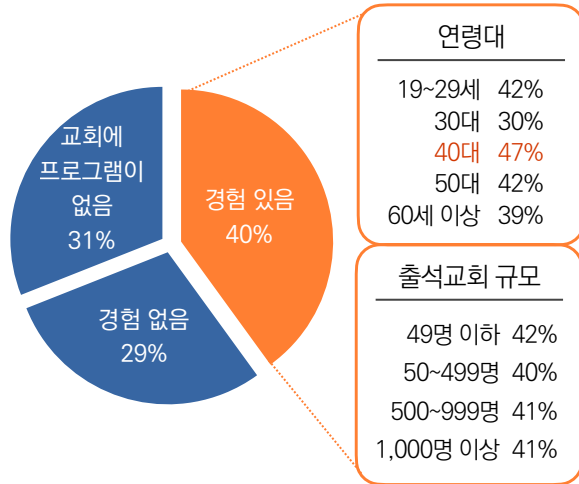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신앙 교육·훈련 욕구 있음' 비율 (교회 출석자, %)



## 신앙 교육·훈련 경험자의 만족도 매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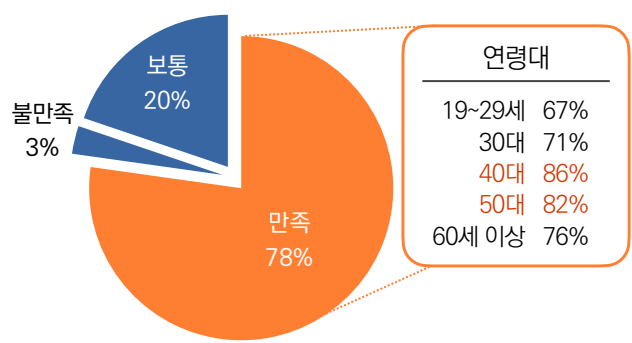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신앙 교육·훈련에 참여 경험을 묻은 결과, 전체 교회 출석자의 40%가 신앙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신앙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교회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실제 신앙 교육·훈련 경험자의 만족도는 어떨까? 경험자의 10명 중 8명 가까이(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신앙 교육·훈련 참여 경험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경험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이다. 특히 40~50대 경험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출석교회 신앙 교육·훈련 참여 경험  
(교회 출석자, 지난 1년 기준,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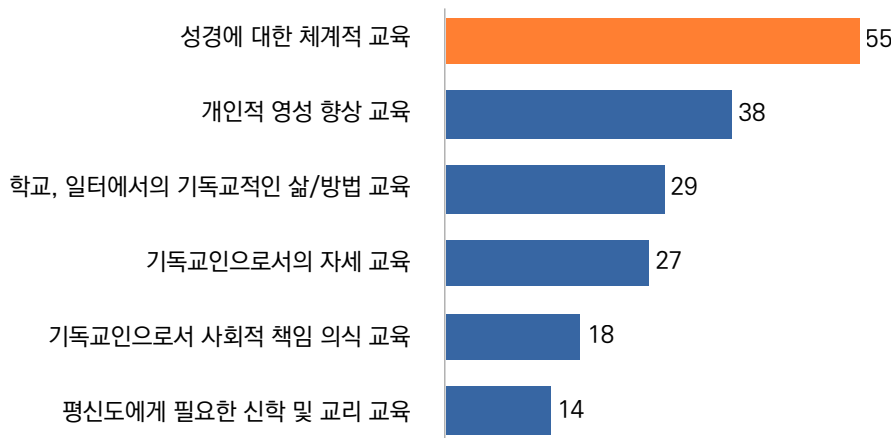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 신앙 교육·훈련 만족도\*  
(신앙 교육·훈련 경험자, %)



## 가장 받고 싶은 신앙 교육·훈련 주제, '체계적 성경 교육'!

- 가장 받고 싶은 신앙 교육·훈련은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적 영성 향상 교육' 38%, '학교, 일터에서의 기독교적 삶/방법 교육' 29% 등의 순이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자 본질임을 교인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받고 싶은 신앙 교육·훈련 내용 (교회 출석자, 1+2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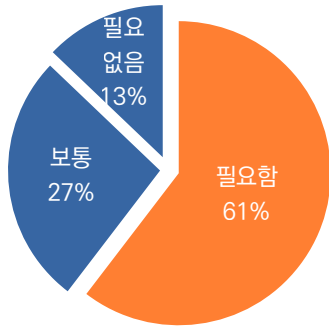
# 03

## [심방/상담에 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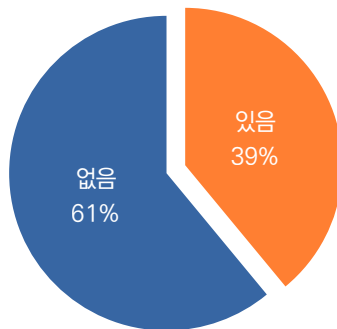
### 목회자의 심방, 필요하지만 받고 싶은 생각은 적은 편!

- 목회자의 심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필요함' 61%, '보통' 27%, '필요 없음' 13%로 교회 출석자 10명 중 6명이 심방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심방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9%만이 응답해 심방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 받고 싶다는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림] 심방의 필요성 인식\* (교회 출석자)



[그림] 심방 받고 싶은 욕구\*\* (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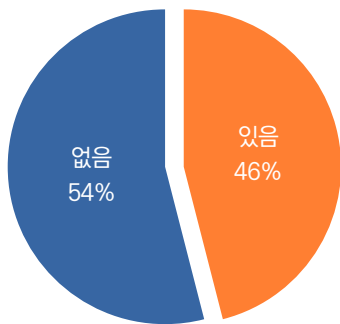


\*5점 척도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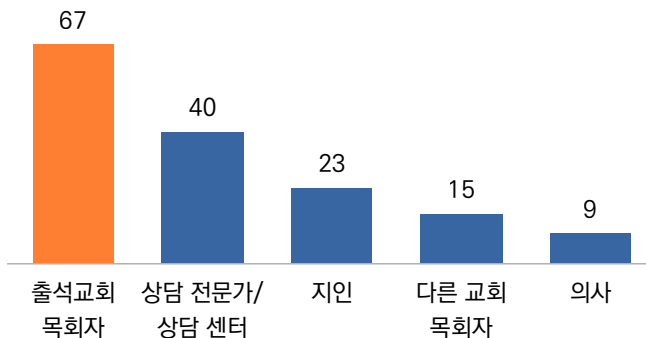
## 개인 문제 상담, '우리교회 목사님에게 받고 싶다' 67%!

- 개인 혹은 가정사로 상담받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를 교회 출석자들에게 물은 결과, 절반 가까이(46%)가 평소 상담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 욕구가 있는 교회 출석자'에게 희망 상담자를 물었더니 '출석 교회 목회자'가 1위(67%)로 '상담 전문가/상담 센터(40%)', '지인(23%)'보다 높게 응답됐다.

[그림] 개인/가정사로 상담 받고 싶은 욕구 (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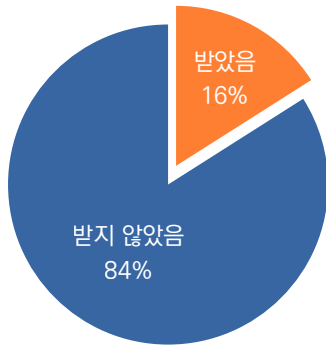
[그림] 개인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사람 (상담 욕구 있는 교회 출석자,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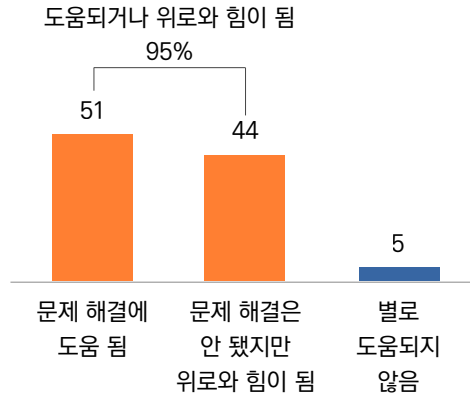
## 목회자와 상담한 교인 95%, '문제 해결에 도움되거나 위로받아'

-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 받은 비율을 전체 교회 출석자 기준으로 보면 16%정도로 나타났다.
-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은 교인들은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상담받은 교인 대상으로 묻은 결과, 절반(51%)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됨'이라고 응답했고, '문제 해결은 안됐지만 상담만으로 위로와 힘이 되었음'이 44%로 응답해 상담 경험자 대다수(95%)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위로와 힘을 얻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은 경험 (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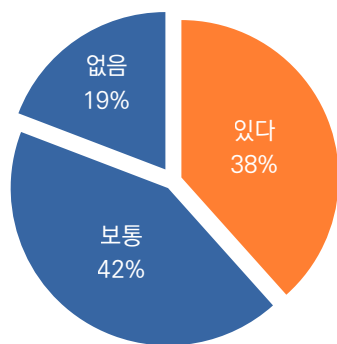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의 상담 도움 정도 (상담받은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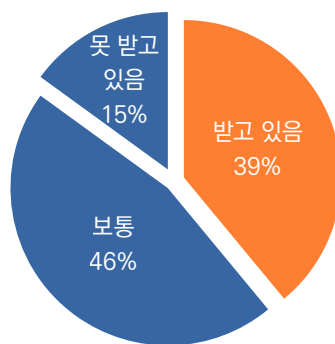
## 04 [목양에 대한 욕구]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관심·돌봄 받고 싶다' 38%!

- 목회자의 관심·돌봄을 받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교회 출석자에게 물었더니 '있음' 38%, '없음' 19%, '보통' 42%로 교인 10명 중 4명 정도만 목양에 대한 욕구를 보였고,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39%)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다.

[그림] 목회자의 관심·돌봄 받고 싶은 욕구\*



[그림] 목회자의 관심·돌봄 느끼는 정도\*



\*5점 척도



## 40대 교인, 목회자의 관심·돌봄 욕구 가장 크지만, 가장 덜 느껴!

- 목회자의 관심·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와 느끼는 정도를 각각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해 보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목회자에게 관심·돌봄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높았으나(43%), 실제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34%)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교인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교회의 교인이 목회자의 관심·돌봄 욕구가 가장 높았지만(43%), 실제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36%로 가장 낮았다.

[표] 목회자의 관심·돌봄, 받고 싶은 욕구 vs 느끼는 정도 (계층별, 교회 출석자, %)

		목회자 관심·돌봄 받고 싶은 욕구*	목회자 관심·돌봄 느끼는 정도**
연령	19~29세	39	38
	30~39세	39	43
	40~49세	43	34
	50~59세	36	39
	60세 이상	37	41
출석교회 규모	49명 이하	40	55
	50~499명	35	37
	500~999명	37	39
	1,000명 이상	4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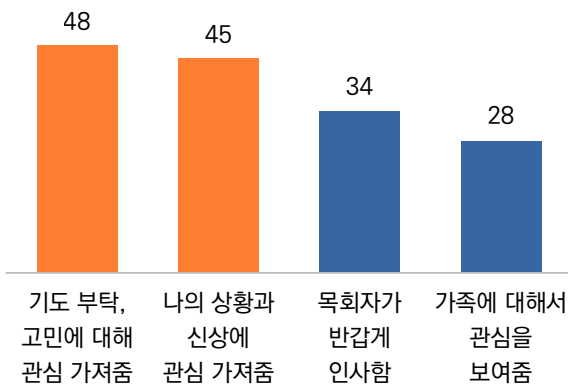
\*5점 척도 중 '매우+약간 있음' 비율

\*\*5점 척도 중 '매우+약간 받고 있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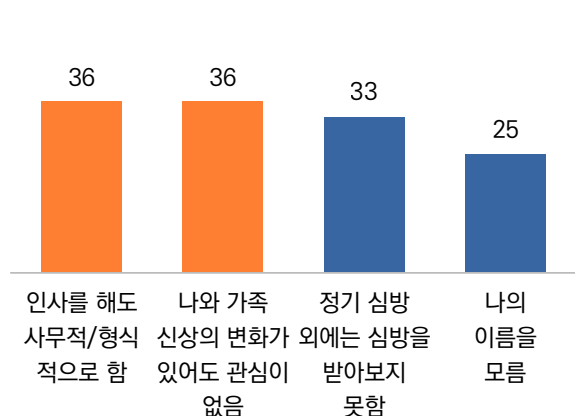
## 목회자가 '나의 고민과 상황에 관심 가져줄 때' 돌봄 받는다고 느껴!

- 목회자의 관심·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기도 부탁, 고민에 관해 관심 가져줌(48%)'과 '나의 상황과 신상에 관심을 가져줌(4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성도의 개인적인 차원에 구체적 관심을 보일 때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는 셈이다.
- 반대로 목회자의 관심·돌봄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로 '인사를 해도 사무적/형식적으로 함(36%)', '나와 가족의 신상 변화에 관심 없음(36%)'이 가장 많이 꼽혀 목회자의 형식적/무관심한 태도를 아쉬워 하고 있었다.

[그림] 목회자의 관심·돌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 (목회자의 관심·돌봄 받고 있는 교회 출석자, 1+2순위, 상위 4위, %)



[그림] 목회자의 관심·돌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 (목회자의 관심·돌봄 못 받고 있는 교회 출석자, 1+2순위, 상위 4위, %)



# 05

## [목회자에 대한 욕구] 교인들이 바라는 목회자,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인품/인격'!

- 출석교회 목회자의 자격 요건(1순위)과 충족도 평균을 응답 순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인품/인격'이 자격 요건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충족도는 4위로 나타났다. 반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능력'은 자격 요건에서는 5위이나 충족도는 1위로 나타났다. 상위 5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자격 요건과 실제 충족 정도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표] 목회자의 자격 요건 vs 충족도 (교회 출석자, 상위 5위)

	인품/인격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설교 능력	기도의 능력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능력
출석교회 목회자 자격 요건 순위	31.2% (1위)	24.5% (2위)	14.2% (3위)	7.9% (4위)	4.9% (5위)
출석교회 목회자 충족도* 평균 순위	4.02 (4위)	4.02 (4위)	4.10 (2위)	4.08 (3위)	4.12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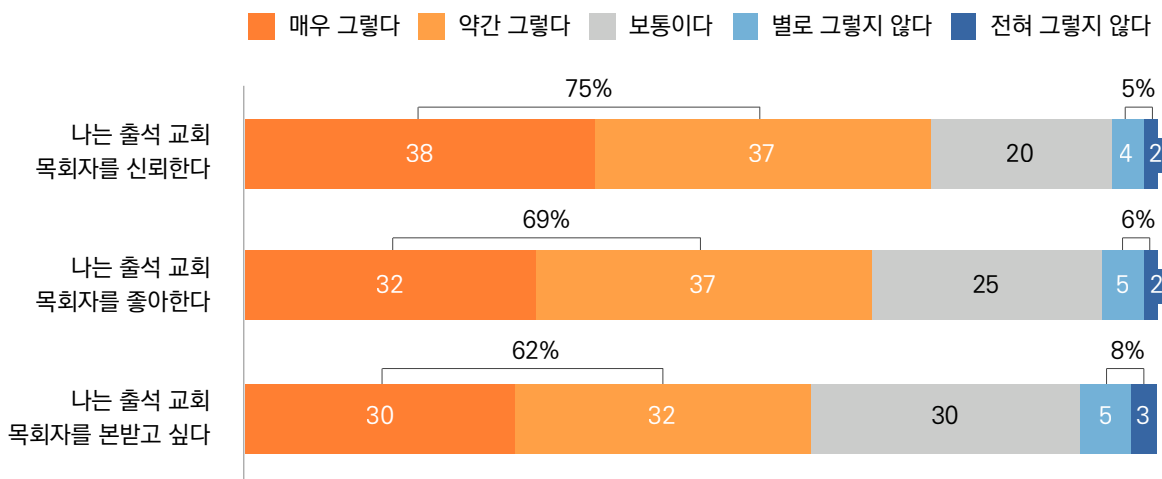
\*5점 척도 평균

Note) 자격 조건은 순위, 충족도는 척도 문항으로 직접적 비교가 불가해 응답 순위로 비교 분석함

## 교회 출석자, '나는 우리교회 목사님을 본받고 싶다' 62%!

- 출석교회 목회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신뢰한다'가 75%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을 보였고 '좋아한다' 69%, '본받고 싶다'가 62%로 나타나 출석교회 목회자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과 신뢰가 높음을 보여줬다. 특히 '매우 그렇다' 비율이 '약간 그렇다' 못지않게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교회 규모가 클수록 '신뢰한다'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좋아한다', '본받고 싶다'는 교회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 호감/신뢰도 평가 (교회 출석자, %)



종교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빠른 성장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교인들의 신앙적 욕구와 기대 역시 변화해 왔다. 하지만 교인이 목회를 평가하거나 신앙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못한 교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목회의 각 영역에서 교인이 느끼는 갈급함과 충족 정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이번 조사 결과는 교회와 교인 간 목회적 간극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국 개신교인의 목회적 욕구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교인의 신앙적 욕구를 살펴보자면, 먼저 '신앙 교육과 훈련 욕구'이다. 교회 출석자 10명 중 7명(70%)이 평소 성경 교육 및 신앙 훈련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받고 싶은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개인 영성 향상 교육', '학교, 일터에서의 기독교적인 삶/방법 교육'이 높게 지적됐다. 교인들의 신앙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는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신앙적 영성을 향상시키고 일상 속에서 성경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인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와 연관된 신앙적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교인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든 교인이 자신의 신앙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확인된 것은 '목회자로부터 돌봄을 받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이다.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더니 '있음' 38%, '보통' 42%로, 81%의 교인이 보통 이상의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냈다. 교인들은 주로 '나의 고민과 상황에 목회자가 관심 가져줄 때' 돌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개인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교인의 경우 상담받고 싶은 사람으로 '출석교회 목회자(67%)'가 오히려 '상담 전문가(40%)'보다 높았다. 교인의 돌봄과 관심 욕구는 교회가 단순한 예배의 장소를 넘어서, 교인 개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소그룹, 가정/일터 방문, 개인 상담 등을 통해 교인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양과 돌봄은 교회를 신앙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의 장으로 만들어 교인들이 교회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신앙적 욕구 충족을 위해 신앙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인은 적었지만 일단 경험한 교인의 경우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는 점이다. 출석교회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경험한 교인은 40%에 불과했지만, 경험자 10명 중 8명 가까이(78%)가 만족함을 표시했고, 개인사로 출석교회 목회자와 상담을 경험한 교인은 16%에 불과했지만, 경험자의 95%가 '문제 해결에 도움 되거나 위로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인의 신앙적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하여 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40대 교인의 신앙적 욕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신앙 교육 훈련 욕구', '심방/상담 욕구', '관심/돌봄 욕구' 모두 40대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회의 약한 고리' 40대의 신앙 약화 결과를 두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편으로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세미나 제목은 '평신도가 보내는 목회 시그널'이었다. 신앙적으로 갈급한 교인이 보내는 시그널에 교회가 세밀하게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야 할 때이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2대 총선 유권자 인구 구성 변화
2. 한국과 일본 고령자 연금 비교
3. 미국 세대별 성소수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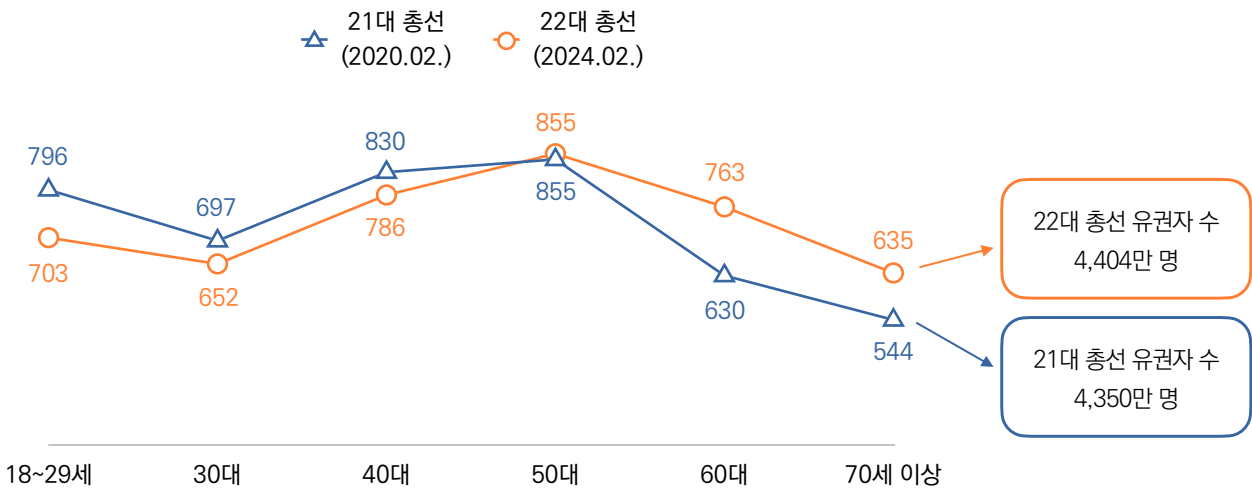


## [22대 총선 유권자 인구 구성 변화]

### 22대 총선 유권자 수, 50대 이상 증가하고 40대 이하 감소

-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수 변화와 연령별 구성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여론 속의 여론)가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총 유권자 수는 2024년 2월 기준 만 18세 이상이 4,40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85% 수준이었고, 4년 전인 2020년 동월 기준 대비 54만 명 증가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22대 총선 유권자 수(2024.02 기준)는 21대 총선(2020.02 기준) 대비 5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 40대 이하 젊은층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특성이 반영되고 있었다.

[그림] 총선 유권자 수 연령별 변화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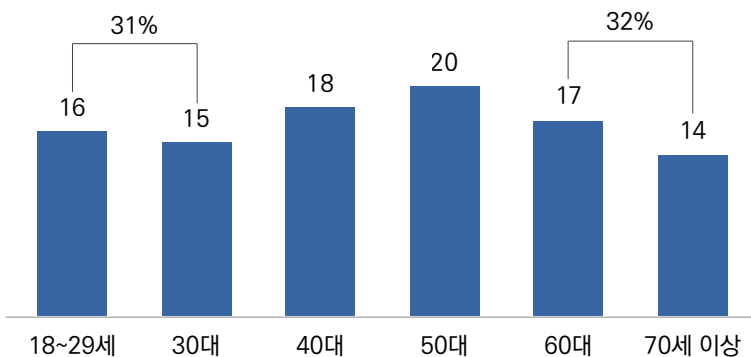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선거구별 인구구성 및 인구변화 분석', 2024.03.27.

## 이번 총선, '60세 이상' 유권자가 '30대 이하'보다 많은 첫 선거!

- 22대 총선의 유권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대'가 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18%, '60대' 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60세 이상 유권자의 구성비(32%)가 30대 이하 유권자(31%)보다 많은 첫 번째 선거이다.

[그림] 22대 총선 연령별 유권자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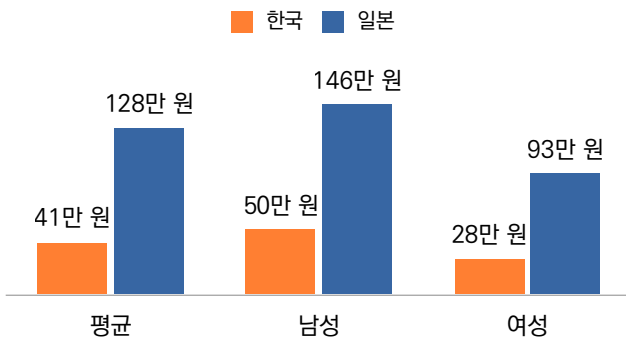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선거구별 인구구성 및 인구변화 분석', 2024.03.27.



## [한국과 일본 고령자 연금 비교] 한국 70대 노인의 연금 수령액, 일본의 1/3 수준!

-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의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단연 '국민연금(48%)'이다. 우리나라 70대의 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본 70대와 비교한 자료가 있어 살펴본다. 2022년 기준 한국 70대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41만 원이며, 일본 70대는 평균 128만 원으로 조사돼 한국 70대 노인의 연금 수령액이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 성별로 보면 한일 양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이상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림] 연금 수령액 비교: 한국 vs 일본\* (2022, 70대 기준)



※출처: 조선일보, 日 70대는 월 평균 128만 원... 韓 70대가 받는 연금액은?, 2024.03.24.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3/24/UALXK2JW6BGIXJBL7SS5XBZ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3/24/UALXK2JW6BGIXJBL7SS5XBZ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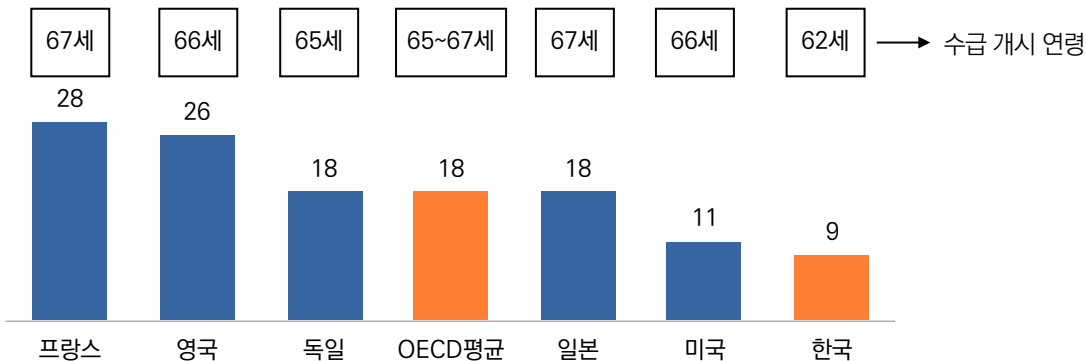
\*엔화 환율 889원 기준

Note) 한국은 '국민연금', 일본은 '후생연금+국민연금' 기준

##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 월 소득에서 공적연금(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비교해 본 결과,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28%, 26%로 20% 중후반대였고, 독일과 일본은 각각 18%로 OECD 평균과 비슷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한국이 62세로 프랑스(67세), 영국(66세) 등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빨랐다.

[그림] 공적연금 제도 보험료율 국제 비교 (보험료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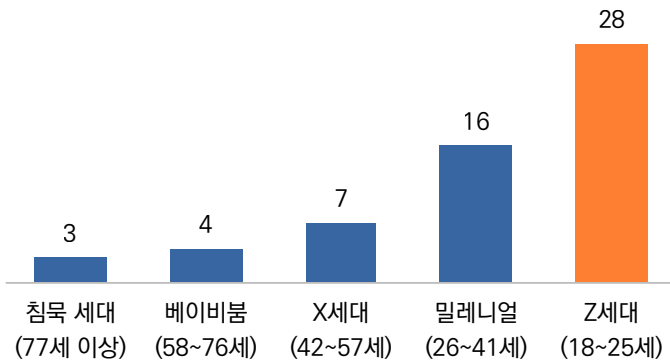
※출처: 조선일보, 日 70대는 월 평균 128만 원... 韓 70대가 받는 연금액은?, 2024.03.24.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3/24/UALXK2JW6BGIXJBL7SS5XBZ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3/24/UALXK2JW6BGIXJBL7SS5XBZ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미국 세대별 성소수자 인식] 미국 Z세대 10명 중 3명, ‘나는 성소수자!’

- 미국 설문 조사기관인 공공종교조사기관(PRI)이 올해 초 발표한 ‘성소수자 인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8세 이상 성인 중 자신을 LGBTQ(각각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의 영문 앞글자를 딴 약자로 성소수자를 의미)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세대별 비교 결과, Z세대(만 18~25세)가 28%로 월등히 높았고, 밀레니얼 세대 16%, X세대 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미국 세대별 성소수자 인식 (18세 이상, 본인의 성소수자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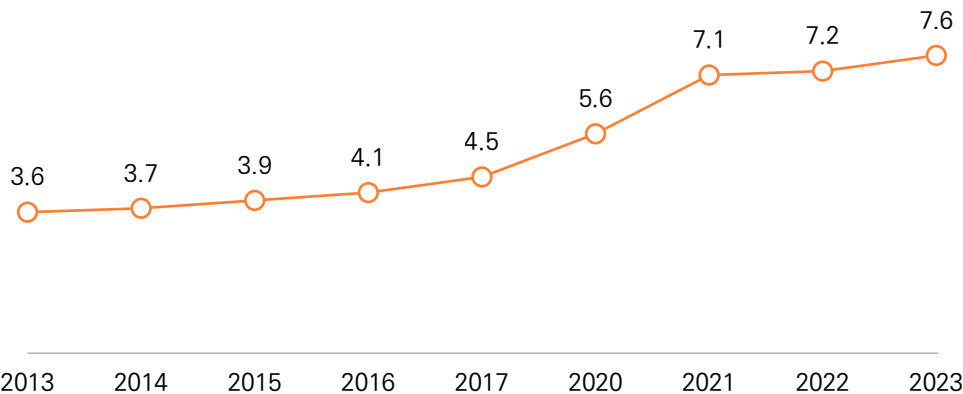
※출처 : PRI(공공종교조사기관), A POLITICAL AND CULTURAL GIMPSE INTO AMERICAL'S FUTURE (부재: 세대 변화와 앞으로의 도전/기회에 관한 Z세대의 견해), 2024. 01.(13세 이상 미국인 6,616명, 온라인 조사, 2023.08.21.-09.15.)

Note) 위 설문은 Z세대 중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나는 성소수자’ 동의하는 미국 성인, 2013년 3.6%→ 2023년 7.6%로 크게 증가!

- 본인의 성 정체성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조사한 성소수자 인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성인의 7.6%가 자신을 LGBTQ(성소수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10년 전 조사(3.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미국 성인의 성소수자 인식 비율 (18세 이상, 본인의 성소수자 동의 비율, %)



※출처 : 갤럽(GALLUP), LGBTQ+ Identification in U.S. Now at 7.6%, 2024.03.13.(18세 이상 미국인 12,000명 이상 대상, 전화 조사)  
(<https://news.gallup.com/poll/611864/lgbtq-identification.aspx>)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119호 \(2024년 4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투표 참여 의향,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한국갤럽\_2024.4.4.

### [“사전투표율 높으면 野에 유리?”…최근 10년간 선거결과 분석해보니](#)

매일경제\_2024.4.5.

## 사회 일반

### [한류 경험자 66% "韓 인식 긍정 변화"…'오징어게임' 3년째 1위](#)

연합뉴스\_2024.4.2.

### [이자소득 상위 1%, 이자로만 한 해 1천700만원 번다](#)

연합뉴스\_2024.4.6.

### [‘늘봄학교’ 도입 한달, 초등 1학년 74%가 다닌다](#)

중앙일보\_2024.4.4.

### [3살 미만 아기 엄마 43% “밤에도 독박육아”](#)

한겨레\_2024.4.5.

### [‘시민이 우릴 안 믿어’… 경찰 절반 ‘사무룩’](#)

국민일보\_2024.4.5.

### [직시, 고유재산에 대한 것, 수인의 자간의… ‘외계어’ 법조문, 쉽게 바꾼다](#)

서울신문\_2024.4.8.

### [‘오토바이 폭주 이젠 꿈짜마’ 앞번호판 연구용역 내달 나온다](#)

중앙일보\_2024.4.5.

###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 22개월 만에 4천500만명 밀돌아](#)

연합뉴스\_2024.4.9.

## 청년 · 청소년

### [10대들 “행복의 최고 조건은 돈보다 건강”](#)

조선일보\_2024.4.4.

### [교대생보다 의대생 더 뽑는다…“올해 입시는 로또” 불안한 고3](#)

중앙일보\_2024.4.4.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했다"](#)

연합뉴스\_2024.4.7.

[\[단독\] 직장 내 성희롱 신고 5년새 '최다'...처벌은 '최저'](#)

한겨레\_2024.4.4.

[불황 모르는 '10년 불패' 서비스업은...의료·금융·부동산](#)

연합뉴스\_2024.4.7.

[불황에 이자는 눈덩이, 월급으로 감당 안됐다...가계 여윌돈 51조 증발](#)

중앙일보\_2024.4.5.

## 국제 · 환경

["아프리카 남부서 2천400만명 이상 기아 직면"](#)

연합뉴스\_2024.4.5.

[한국인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

한겨레\_2024.4.5.

## 건강

[하루 1만보 걸어야 건강 유지? 5000보로는 부족할까?](#)

동아일보\_2024.4.5.

[2030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젊은 암이 늘어난다](#)

조선일보\_2024.4.7.

[바보도 포라이도 아닙니다, '젊은 ADHD'의 슬픔](#)

조선일보\_2024.4.5.

## 기독교 · 종교

["2022년, 전 세계 57개 언어로 첫 번역 성서 출판"](#)

기독교연합신문\_2024.4.6.

[우울한 MZ, '나약함'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한국기독교공보\_2024.3.31.

["번뇌멈춰" "극락도 락"...불교박람회 'MZ 핫플'이라고?](#)

경향신문\_2024.4.7.

[강도사·목사 응시생 역대 최저... 5년새 47% 뚝](#)

더미션(국민일보)\_2024.4.9.

# 후원

##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체, 마을학연구소, S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신규 후원

남서울은혜교회 (담임목사 박완철)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